

현대공업, 제네시스 SUV 'GV80' 부품 양산 돌입

- ▶ 제네시스 브랜드 SUV 'GV80' 모델에 시트패드&암레스트&백보드 패널 등 공급
- ▶ 5년 총 722억 원 신규 매출원 확보, 내수 시장 성장세 꾸준히 유지될 것

<2020-01-14>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 현대공업(170030, 대표이사 강현석)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영역을 넓혀줄 신차 'GV80' 차종에 부품 공급을 시작한다.

현대공업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 모델인 'GV80'에 시트패드, 암레스트, 백보드 패널 등 주요 내장재 부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고,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총 4만 5천대의 물량 순증 효과로, 향후 5년간 722억 원의 신규 매출원 확보가 예상된다.

특히 주력 품목인 시트패드, 암레스트 외에 신규 부품에 대한 공급 확대가 인상적이다. 제네시스 G90 차종에 처음 적용됐던 고급 백보드 패널이 GV80까지 적용되며, 현대공업의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고급 백보드 패널의 경우 단가가 높아 추가 수주 발생 시, 매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GV80', 'GV70' 등 제네시스 브랜드의 신규 SUV 라인업 및 풀체인지 모델(G80, G70) 차종에 대한 수혜는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제네시스 라인업 확대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프리미엄 차종들을 통한 수익성 확보까지 기대되고 있다.

현대공업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된 GV80을 필두로 프리미엄 차종의 신규 라인업 확대는 현대공업의 실적 성장을 이끌 것"며 "현재 현대차 모든 SUV 차종에 물량 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친환경 전기차 등 트렌드를 주도할 신차 효과가 더해져, 2020년에도 내수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문의

현대공업 임현재 차장 (052-278-1848)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6011-2000(#138))